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질적연구: 1대1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김진경 · 전민선[†]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Qualitative Research to Build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Operation Model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e-On-One In-Depth Interview

Jinkyung Kim · Min-Sun Jeon[†]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ABSTRACT

Nutrition education is essential for the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aper presents nutrition education topics and operational direc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11 operators and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reside. They were asked about the current status of nutrition education at the social welfare fac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ere the interviewee works, major diseases of residents, topics of nutrition education needed, and preferred education methods to determine the type of nutrition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ed in the field. As a topic of nutrition education, dietary education for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was most requested, and education on basic nutritional ingredients was also desired. It was mentioned that the educational level would be appropriate for children aged 6~9, and using materials that would attract interest was recommended. Activity-based face-to-face education was preferred for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and it was mentioned that education would be possible in a short period.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that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nfirming the topic and operation direction of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requir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make it possible to contribute to providing nutrition education tailored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Key words : disabled, nutrition educa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22192MFDS067) fr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2022.

접수일 : 2024년 2월 2일, 수정일 : 2024년 4월 24일, 채택일 : 2024년 4월 29일

[†] Corresponding author : Min-Sun Je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Tel : 82-42-821-7814, Fax : 82-42-821-8887, E-mail : dearms@cnu.ac.kr, ORCID : <https://orcid.org/0000-0002-3396-5939>

서론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 장애인 인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인구 대비 5.2%에 달하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2023). 이러한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 중에 있으며(Je 2015; Kim 등 2022), 장애인 시설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Kwon 2018)로 장애인의 영양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22년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이 시행되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이 중 영양사 채용에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운영 현황조사(Kim 2022)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는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중 12,995곳에서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78.8%에 달하는 10,238곳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 2,181곳 중 50.3%에 해당하는 1,097곳이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급식의 위생·안전과 함께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교육 등의 포괄적인 영양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9년 7개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68개소에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3).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Son 2005)로 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7). 국외 선행연구(Kinne 등 2004; Drum

등 2005)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이나 수명감소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의 79.3%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나타났으며(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국립재활원은 비만율과 당뇨병·고혈압 유병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등에서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다(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에 따르면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생은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Bac 등(2020)의 연구에서도 식습관 교정과 식이조절 영양교육이 만성질환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영양관리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 장애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1).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 외 국내 장애인 대상의 영양교육 연구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 혹은 가정생활을 하는 장애인 대상의 영양교육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Hwang 등 2019; Yang 등 2019). 때문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대상자들의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자, 국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모델 구축이라는 연구 주제에 적절한 현장의 답변을 반영하고자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를 바탕으로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5개 지역 중 인터뷰에 응한 서울·경기, 대전, 영남 지역의 6개소를 선정하였고, 인터뷰 동의를 받아 종사자 11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장애인의 건강, 영양 문제를 자세히 응답해 줄 수 있는 돌봄인력(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우선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장애인 대상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영양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영양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조리사를 참여자에 포함하였다.

11명의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Table 1)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1대1 심층면접을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인터뷰에 동의한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외부인 출입 허가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2023년 6월 한 달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할 현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수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이 포화상태(saturation)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질적연구의 포화 상태는 '자료수집 중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새로운 테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인터뷰의 수로 한다(Francis 등 2010).

2.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인터뷰는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참여

자가 근무 중인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방문 혹은 유선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매 인터뷰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관하여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참여자의 특성을 묻는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고, 서면동의서의 동의를 받았다. 서면동의서에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대상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설문 도중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202303-SB-048-01).

Table 1. Summary of questions asked in the interview.

Opening questions	
•	Introduction to the duties of facility workers
•	Check the age ran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facility
Main questions	
•	Major nutritional problem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al settings
•	Disease types and rat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Whether nutrition education or nutrition counseling is provid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Operation method and content when operating nutrition education or nutrition counseling
•	Nutrition education topics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Precautions when providing nutrition education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Possibilities and precautions for 1:1 nutritional counsel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Topics needed for hygiene management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Appropriate educational media for nutritional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e.g., Face-to-face lectures, videos, printed material provided, small group activities, cooking practice, and games)
•	Expected effect of improving nutritional status after nutrition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Concerns when providing the nutrition education
Closing question	
•	Additional opinions regarding nutrition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인터뷰 당시 즉시 녹음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복하여 청취하였으며, 2명의 연구보조원이 자료를 필사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필사 후 Hsieh & Shannon(2005)의 전통적인 내용 분석(conventional context analysis)과정의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인터뷰 종료 후 인터뷰의 녹음 내용을 한글파일 형태로 전사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전사된 인터뷰 자료와 녹음 내용을 반복적으로 대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녹음의 원자료에서 보이는 경향성과 빈도, 강도, 경향, 특수한 반응 및 표현된 정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1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추출을 통해 확보된 의미 있는 진술과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관련

이 없는 정보는 진술 내용의 검토를 통해 공통적인 속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넷째, 전사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주제별로 분석한 자료가 원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결 과

연구참여자는 총 11명으로,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 중이었고 1명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간활동시설에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 중인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들의 주된 장애형태는 발달장애인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의 거주시설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70%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이 약 20~30% 차지한다고 하였다. 직급의 경우 실무자(영양

Table 2. Study participant characteristics.

Participant ID	Gender	Age range	Type of social welfare facility he/she works at	Main type of disability of the resident	Rank (job title)	Length of service (yrs.)	Period of work in the welfare field (yrs.)
1	F	50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Hands-on worker (cook)	≤1	<5
2	F	60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brain lesion disorder	Manager (facility manager)	10<	20<
3	F	40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brain lesion disorder	Manager (facility manager)	10<	20<
4	F	40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brain lesion disorder	Hands-on worker (nutritionist)	6~10	5~10
5	M	40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Manager (secretary general)	10<	16~20
6	F	40s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Manager (facility manager)	10<	20<
7	F	50s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Hands-on worker (cook)	3~5	20<
8	F	30s	Daytim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Manager (secretary general)	3~5	<5
9	F	40s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Manager (facility manager)	1~2	20<
10	M	50s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Manager (facility manager)	10<	20<
11	F	40s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Developmental disability	Manager (director)	10<	11~15

사, 조리원)가 3명, 관리자(시설장, 사무국장)가 8명이었으며, 시설 근속 기간은 1년 이하부터 10년 이상 장기근속까지 다양하였다. 복지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원도 5명 포함되어 있었다 (Table 2). 심층면접 후 개방형 코딩을 통해 도출된 주요 진술은 주제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정리된 3개의 주제와 12개의 범주, 22개의 주요 진술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1. 교육 주제

1) 비만과 편식의 예방 및 관리

모든 연구참여자가 대부분의 발달장애 입소자·이용자에서 비만 혹은 과체중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체중관리가 가장 중요한 영양교육 주제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비만한 경우 만성질환 발병 확률이 높으며, 자가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을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비만 예방 및 관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과체중이 정말 많은 것이 고민이에요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은 특별히 비만 조절이 많이 필요해요 비만이 많아요” (ID 6)

“비만은... (이용자가) 다 비만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80~90%는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D 3)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입소자·이용자의 영양교육 중 가장 필요한 주제로 편식 예방을 언급하였다.

Table 3. Details of the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ubject	Category	The details
Education/consulting subject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obesity and picky eating Basic nutrition education Personal hygiene management, including dining etiquette Needs for facility workers training due to limitations in training for the disabled/nutritionists. Basic nutrition knowledge How to provide tube feeding	The rate of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high. High rate of picky eating When conducting a needs survey, it is necessary to select healthy foods Nutrients of frequently eaten foods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through basic personal hygiene education Need for education on hygiene-related dining etiquette during meals Limitations to nutrition education for the disabled Importance of balanced nutrition provided to the disabled When providing tube feeding to patients with brain lesions, they need tips on changes in temperature, taste, and ingredients
Education/consulting media	Level of difficulty for ages 6 to 9 Activity-oriented education using media that can arouse and maintain interest Colorful pictures and video materials	Difficulty level of lower elementary school grades or lower Preference for activity-oriented education (e.g., cooking education) Excellent concentration on food Due to the high illiteracy rate, it is necessary to use media focusing on pictures and videos. Colorful educational materials that attract curiosity are effective.
Operate method	Activity-based face-to-face education Short training time Repeated training on the same topic Flexibility of training cycle depending on training content and method Nutrition education for facility workers	Face-to-face education is highly effective Elementary school level classes available for around 30 minutes Classes that include activities can last up to 1 hour. Since the lasting effect of education is short, face-to-face education conducted frequently and with short intervals is effective. Once a month for training that includes activities Theoretical education is held twice a year. Support for proper eating habits during nutrition education is limited to only those with disabilities. In the case of the disabled who do not voluntarily refrain from eating, training is not effective.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편식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편식을 하죠 딱 그 나이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20대 남자들은 돈가스를 좋아하고..” (ID 8)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입맛이라고 하죠 그런 음식 좋아해요 튀긴 거 좋아하고 채소 별로 안 좋아하고.” (ID 2)

이와 함께 다수의 시설에서 입소자·이용자의 생활에 있어 욕구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설들은 이러한 욕구도 조사를 통해 야외 활동 선호도 등 일상생활 선호와 함께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식단에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식을 선택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욕구조사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다 그림을 보여드리거든요 하나하나 이거 사진 보고 이게 좋다 싫다 이 정도요” (ID 10)

“눈에 보이게끔 모형들이 있고 그 모형을 갖고 내가 밥상을 이렇게 짜보고... 이런 교육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그림으로 된 걸 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식단 만들기를 해서 욕구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ID 8)

2) 기초적인 영양교육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입소자·이용자에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초적인 식품과 영양소에 대한 내용이 교육되길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영양과 건강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알려주고, 장애인 입소·이용자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 이용자들은 건강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 건데 자주 먹는 음식에 뭐(영양소)가 들었는지 그런 걸 (배우면) 좋아할 것 같아요” (ID 1)

“지원 인력(시설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떻게 이분들을 유도해서 잘 먹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안되잖아요 먹고 싶게 해야지.” (ID 6)

3) 식사 예절을 포함한 개인위생 관리

과반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은 입소자·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교육되어야 할 주제로 개인 위생 교육을 꼽았다. 특히 입소자·이용자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타인의 식판에 옮기거나 식판의 음식을 손으로 만지는 등 위생과 연결될 수 있는 바르지 못한 식사예절을 가진 경우를 다수 언급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타인과 지켜야 할 예절로서의 위생 관념을 입소자·이용자에게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청결 일단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뭐 이런 기본적인 위생교육이죠” (ID 2)

“어떻게 먹어야 되나에 대한 거요 흘리지 않고 음식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이런 식탁 예절 먹기 싫은 거 친구에게 살짝 밀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는 더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ID 2)

2. 교육매체

1) 교육 난이도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발달장애 입소자·이용자의 교육 수준은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수준을 언급하였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된 의견에 따라 6~9세 수준의 난이도가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연령대보다 중요한 게 그걸(교육) 받아들이는 지적 능력이거든요. 연령대는 20세에서 50세인데 이분들 수준은 3살부터 15살 정도?” (ID 8)

“유치원생 정도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 수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ID 5)

2) 흥미를 유발하는 매체의 개발과 활용

교육 대상자의 특성상 집중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입소자·이용자의 집중력 유지를 위해 어떤 매체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1) 음식 등을 활용한 활동 중심 교육

입소자·이용자의 집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의 교육이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활용한 요리활동은 현재 다수의 시설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리실습 교육이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활동. 일단은 활동이 매회 들어가야 해요” (ID 2)

“활동 중심이 훨씬 좋고요 저희가 오늘도 만두를 빚었었고요(사진을 보여주며), 이 케이크도 직접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 (ID 11)

“먹는 것에 대한 집중도는 뛰어나요. 영양교육에 먹는 걸 활용한다면 훨씬 더 집중할 것 같아요” (ID 10)

(2) 화려한 색감의 그림, 영상 자료의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입소자·이용자의 높은 문맹률을 언급하며, 색이 다양한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한 교육자료를 활용했을 때 집중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욕구조사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요. 문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ID 9)

“그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면 다 짚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영양교육을 한다면 영상이나 컬러 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D 11)

3. 교육 운영 방법

1) 활동 중심의 대면 교육

장애인 대상자의 교육 운영에 있어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면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활동 중심의 대면 교육이 입소자·이용자들의 호응과 실천면에서 효과적이었던 선례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직접적인 거(대면 교육)고 요리활동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30분 이상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다음에 동영상이나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ID 8)

“저희 만두 빚기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만두를 만들면서 속에 있는 재료를 내가(입소자 본인)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먹는 거예요” (ID 2)

2) 짧은 시간의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입소자·이용자의 경우 집중력의 지속 정도가 초등학교 또는 그보다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 시간 또한 30분 전후의 교육이 가장 적절하며, 체험활동이 포함할 경우 1시간 전후의 수업도 가능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집중력이) 초등학교 고학년만큼도 안 돼요. 초등학교가 수업 시수가 40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면 무방하지 않겠나.. 총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지 아니면 (어려워요).” (ID 6)

“시간은 최대 1시간입니다. 한 시간이면 애들이 산만해져요” (ID 1)

“활동을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ID 5)

3) 반복 교육의 중요성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지식에 대한 습득은 빠른 반면, 지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지속 효과가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대면 교육의 주기를 짧게 자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잘 받아들이고 잘 잊어버려요 받아들이는 건 빠르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해야 이게 습득이 되는 건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뭘 스스로 계속 절제하고 이런 부분에선 약하지만 그래도 습득은 빠르다라고 저는 느껴요” (ID 8)

“시간을 조금 짧게 해도 자주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ID 9)

4) 교육 주기의 융통성

연구참여자들은 영양교육 방법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 주기를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활동을 포함한 장애인 대상자 교육의 경우 월 1회 또는 그보다 잦은 횟수의 교육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한 반면, 이론 위주의 교육은 연 2회 교육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 12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좋지만, 그 친구들이 또 지루해할 수 있어요 요리 수업 형식으로 가거나 같은 내용도 계속 변화를 주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일반적인 교육 형식으로 가게 되면 연 2회 정도 활동 형식이면은 월 1회?” (ID 8)

5) 시설종사자 대상 영양교육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장애인 입소자·이용자 대상 교육만으로 장애인 입소자·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종사자 대상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직접 식사가 불가하므로 직접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는 언급도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관급식 제공 방법을 주제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참여자가 다수 있었다.

“(뇌병변장애인들은) 잘 드셔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안 먹고 싶어서 못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ID 3)

“영양교육도 영양교육이 왜 필요한지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먼저 알아야 해요 사회복지사(시설종사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교육을 하면 이러해서 잘 먹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먹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사회복지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ID 6)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 분들한테 교육은 한계가 좀 있으실 것 같고” (ID 9)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시설의 참여자들은 경관급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인 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나, 경관급식 제공 시 온도와 맛의 중요성, 제재 변환 시의 요령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영양사여도 경관급식에 대한 지식을 얻기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은 샘플을 받아서 영양성분을 비교해서 제품을 바꿔서 써보기도 하죠.” (ID 4)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서 교육을 하거든요 또는 (다른 시설) 선생님들한테 경관급식할 때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물어서 해요 저는 사회복지사여서 그런 걸 배우지 않아서 영상으로 배워서 하는데, 이용자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이용자분들(뇌병변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D 3)

고 찰

본 연구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영양교육 제공 시 필요한 주제와 매체, 방법을 포함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지적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어 영양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대상자들의 비만과 편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 대다수가 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기나 튀김류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식품에 대한 편식이 심하여 비만 또는 과체중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식사 및 간식 제공 시 욕구조사 즉, 선호도를 조사해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한 메뉴 구성 시 건강한 대체 식재료 활용 방법, 건강한 간식 선택 방법 등을 교육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생들의 식행동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Lee & Lee 2004)에 따르면 영양교육 미실시교와 비교했을 때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영양지식 실천도가 높았으며, 고기·생선·달걀, 두부 및 콩류,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 등 주요 식품군의 섭취 빈도 또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의 영양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Lee 등 2014)에서도 영양교육 이후 대상자들이 본인이 섭취하는 음식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식품 섭취와 건강 관련성에 관한 관심도, 식행동 면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점수가 상승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영양교육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하여 편식과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 대상 교육 시 활동 중심의 대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장애인 입소자 및 이용자들은 요리활동 등의 활동 중심의 교육을 선호하며 초등학교생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난이도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등 2006)에서도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이 영양교육의 운영 유형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요리 체험활동의 효과를 연구한 Ahn 등(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요리 체험활동을 진행한 결과 체험 후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음식에 대한 인식과 지식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체험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교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에서의 체험활동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장애인 대상자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대상 영양교육의 핵심적인 접근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종사자 대상의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애인 입소자 및 이용자 대상 교육만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시설종사자 대상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ong & Rho(2018)는 식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영양소 섭취는 보호자의 식품 선택 및 식생활 태도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Hong 등(2010)의 연구에서도 유아원에서 유아의 영양교육 시 교육에 관련된 안내문을 부모에게 보내거나 부모에게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대부분의 식생활을 하게 되므로, 식품 선택 능력 혹은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 입소자 및 이용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돌봄을 담당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종사자가 직접 장애인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교육한다면 장애인들의 식생활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수의 시설종사자들이 식품영양 관련 전공자가 아니므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영양지식, 자주 접하는 식품 및 음식에 대한 영양소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들의 직접 식사가 불가능하므로 입소자 교육보다는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경우 식사돌봄 방법, 경관급식 제공 방법, 수분 제공 방법 등 영양공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돌봄 인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예견되며, 이는 시설 운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므로 영양교육 제공 시 입소자·이용자와 시설종사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의 개발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어야 할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으나, 영양 서비스의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져 직접적인 요구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사회복지시설과 직급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들 대상의 영양관리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1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편식과 비만에 대한 우려가 다수 언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편식 예방과 교정, 비만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요구가 확인되었다. 영양과 함께 위생적인 식생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 교육의 수준은 각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입소자 및 이용자 구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평균적으로 6~9세 수준의 난이도가 적절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대상자의 지적 수준과 함께 집중도 또한 아동 수준이기 때문에 흥미 유발과 유지를 위한 교육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영양교육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육의 한계가 있는 장애인 대상자에게만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입소자·이용자의 식생활을 돌보는 종사자에게도 영양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교육은 장애인 입소자·이용자와 종사자의 동시에 진행되는 방향의 현장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입소자,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

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영양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ORCID

김진경: <https://orcid.org/0009-0005-1950-7682>

전민선: <https://orcid.org/0000-0002-3396-5939>

REFERENCES

- Ahn HJ, Woo TJ, Lee KH (2012): Effects of cooking activities on the taste and perception of Korean foods among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Diet Assoc* 18(4):344-355
- Bae TJ, Jeon NE, Choi SK, Seo JS (2020): Effect of nutrition counseling by nutrition care process on diet therapy practice and glycemic control in type 2 diabetic patients. *Korean J Community Nutr* 25(3):214-225
- Drum CE, Krahn G, Culley C, Hammond L (2005):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the health dispar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lif J Health Promot* 3(3):29-42
- Francis JJ, Johnston M, Robertson C, Glidewell L, Entwistle V, Eccles MP, Grimshaw JM (2010): What is an adequate sample size? Operationalising data saturation for theory-based interview studies. *Psychol Health* 25(10):1229-1245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1): Information on the 3rd stage pilot project for the disabled health doctor.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pp.1-162
- Hong MA, Choi MS, Han YH, Hyun T (2010):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developed by a Public Health Center on preschool children'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habits and the parent's dietary attitudes. *Korean J Community Nutr* 15(5):593-602
- Hsieh HF, Shannon S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 Health Res* 15(9):1277-1288
- Hwang SH, Gong HJ, Lee JS, Kim BC, Yang KM (2019): Development of a dietary education program based on scientific cooking for families with disabilities. 2019 KFN 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nual Meeting.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Jeju. pp.376
- Je CU (2015):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Chonbuk Law Rev* 44:153-182
- Kim E, Kim H, Han J (2022): Development of a smart content education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of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metaverse era. *J Intellect Disabil* 24(2):73-96
- Kim HH, Park YH, Shin EK, Shin KH, Bae IS, Lee YK (2006):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5(8):1016-1024
- Kim KY (2022). Approximately 80% of welfare facilities provide meals without a nutritionist. Available from: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32> Accessed October 20, 2023
- Kinne S, Patrick DL, Doyle DL (2004):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 J Public Health* 94(3):443-445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7): The disabled white book.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pp.118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Nov. Report No.: 11-1352000-000568-12.
- Kwon SJ (2018): Health care and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issues. *Health Welf Policy Forum* 263:21-33
- Lee JY, Lee SY (2004): A comparative study on nutrition knowledge, eating behavior and nutrient intake for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s with and without nutrition education program. *J East Asian Soc Diet Life* 14(6):561-570
- Lee YJ, Lee HJ, Lee KH (2014): Effects of 16-class nutrition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al knowledge. *Korean J Food Nutr* 27(5):826-836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3). "A happy meal together, a healthy day for everyone" Join us at the Social Welfare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 Available from: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3120&bbs_no=bbs001&ntctxt_no=1095446&menu_grp=MENU_NEW01 Accessed October 20, 2023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Meal Safet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etc.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939&chrClsCd=010202&curlMode=lsInfoP&efYd=20220728&ancYnChk=#0000> Accessed October 17, 202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Lis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2022.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371984&tag=&nPage=3 Accessed October 15, 2023
-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2023). Announcement of statistics on the status of registered disabled people in 2022. Available from: https://www.nrc.go.kr/portal/board/boardView.do?no=18905&fno=39&part_no=&menu_cd=10_01&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search_item=1&search_content=%EB%93%B1%EB%A1%9D%EC%9E%A5%EC%95%A0%EC%9D%B8&pageIndex=1 Accessed October 15, 2023
-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2018): 2017 Health care project for the disabled.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Seoul. pp.340
- Son KH (2005): 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Hyunhaksa. Seoul. pp.18-19
- Song EY, Rho JO (2018):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of guardians, and nutritional status of infants and toddlers - Nutrition-Plus program in Jeonju. J Nutr Health 51(3):242-253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World Health Organ Tech Rep Ser 916:i-viii, 1-149, backcover
- Yang KM, Cheon YJ, Kim BC, Yoon UJ, Kim SJ, Lee JS, Gong HJ, Kim YH (2019): Development of a healthy eating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independent eating habits i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9 KFN 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nual Meeting.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Jeju. pp.376